

《E. C》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가치입니다.》 김정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끝없는 환희와 경격속에 우리 당의 뿌리인 《E. C》결성 8돐을 맞이하였다.

새날의 시작을 알리며 세 멀리 동녘 하늘에서 떠오른 태양의 빛 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이 높이 모친 만년대언의 항일혁명투쟁 람 붉은 기록에 새겨진 『타도제국주의』라는 글자를 금빛으로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만년대언의 붉은 기록에 새겨진 『타도제국주의』,

조용히 그 의미를 새기느라면 혁명의 붉은기 더불어 《E. C》에 뿌리를 두고 훌륭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가 눈에 삼삼 안겨온다.

붉은기 훌륭한 『타도제국주의』에 그 나날로부터 걸고 짚지 않은 역사가 풀렸다. 이 기간 조국과 인민이 당의 평도밀에 이룩한 변천은 그야말로 광활한 한것이고 우리 존엄과 위력은 세계의 상상볼에 울려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혁명의 붉은기 『E. C』의 높이 새겨진 때로부터 조선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향로를 따라 힘차게 진진 할수 있었다.

그렇다. 혁명의 붉은기에서 빛을 뿐이라는 『E. C』의 높은 오늘도 심장과도 같이 김일성민족의 천만기슴마다에 주체의 피를 뿐이 주고 아국의 박동을 더해주며 사회주의 강성 국가건설에 전할줄 모르는 힘을 부여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무주시고 붉은 기발을 드신 때로부터 우리 당의 뿌리도 튼튼히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E. C》의 높이 빛나기는 혁명의 붉은기 가 천상의 심장에 새겨주는 자세적 의미, 역사의 무게, 인생의 철리는 얼마나 비상한 것인가.

《E. C》는 우리 당의 억센 뿌리이다. 뿌리, 이 두 글자에 우리 당의 순결성과 생명력, 그 불폐성이 하나

혁명의 붉은기 더 높이 들자

로 접되어 있다. 뿌리가 있어 즐기가 되고 일파꽃이 피며 열매가 맺혀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듯이 조선로동당이라는 거목을 빙반한 억센 뿌리 『E. C』가 있어 우리 당은 무한대한 생명력을 지니고 훌륭한 혁신력을 장엄하게 수놓을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거례의 피터는 남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결성하신 태도제국주의 동맹!

주제 15(1926)년 10월 17일 『E. C』의 결성으로써 조선혁명의 스승스러운 붉은기나 나부끼기 시작하였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정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 들어서게 되었다. 『E. C』의 강령은 우리 당 강령의 기초로 되었으며 『E. C』의 내세우는 자주권을 확보한 천만민은 위대한 세계적인 기반이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E. C』에서부터 암체의 세상을 불사르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세상, 새제도를 일떠세우는 위대한 혁명정신이 첫걸음을 떠었고 당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자립, 자원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는 성스러운 이국의 자주가 시작되었으며 지구상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세계를 건설하는 인민사적위업이 자기의 탈생을 선로하였다.

『E. C』의 실현한 의미와 성스러운 음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있으며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언제 인가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조선혁명의 붉은기 차를 추는 것은 1926년 충화강기슭에서였다. 그때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세울 것을 『E. C』의 강령으로 내세우면서 그 실현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 것을 혁명의 붉은기 앞에서 맹세다렸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하지만 『E. C』의 결성이 어찌하여 그토록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것인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된 『E. C』의 가치, 그것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자주의 가치였다.

세월이 흘러 훌륭이 되어 한 수령님께서 『E. C』결성모임때 우리는 반일투쟁의 역사적교훈에 비추어 당시의 몇몇 사람들에게 해석되었던 대중운동으로,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존해서는 아니라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뿐이며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력사를 창조하였고 인민을

교시가 오늘도 환경의 언덕에서 휘날리던 붉은기의 세찬 퍼덕임소리에 살며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옮려주고 있다.

유구한 인류역사가 새겨온 위원전, 명인전의 어느 갈피에 우리 수령님처럼 10대의 그 시절에 이처럼 비범한 천혜의 어지, 거창한 포부와 리상으로 충만된 투정목표를 제시하시고 참다운 주체혁명의 혁명적전위조직을 결성하시여 자주의 가치아래 새로운 시대를 절친 세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는 이민위천의 높이 혁명가들의 심장마다에 자리잡게 하였다.

그 붉은기를 높이 들고 항일혁명 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 따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으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였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행동으로 조국해방전쟁과 사회주의건설에 조국포부를 헌신하고 참다운 주체혁명의 가치아래 새로운 시대를 절친 세

『E. C』의 전통의 계승, 그것은 곧 불은기사상의 운호, 불은기전통의 고수라고 할 수 있다.

하기에 통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수십년동안 휘날려온 불은기가 내리리 워진것을 기회로 사회주의의 종말을 펴드는 적들의 궤변이 행성에 범람

하면 때 노래 『높이 들자 붉은기』를 90년대의 『작기기』라고 높이 평가 하면서 혁명가의 일생은 붉은기를 휘날려가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에서 력사는 결 출한 위인을 모시여 굳건히 이어지는 『E. C』의 운동을 하면서 전통과 고귀한 높이에 대하여 자주의 폐지에 더욱 자랑스럽게 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과 평양시군중시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천만의 심장에 깊숙이 헤아려지고 있다.

우리 당이 조선을 이끌고 광명한 미래에 힘차게 나아가자면 명실

공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배방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성스럽게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당파조국파 민족의 운명이 시고 미래이 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가치이다.

『E. C』에 뿌리를 둔 혁명의 붉은기에게 마치와 날, 불을 아로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군혁명령도 따라 조선로동당기를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이런 심장의 웨침이 힘차게 울리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한평생이 어려웠고 『E. C』의 높으로 높뛰는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들고나가자!

본사기자 김준혁



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의 성스러운 혁명사상을 감회깊이 들이켜보고 있다.

-만수대연덕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촬영

제 멀리 『E. C』의 언덕에서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

무한대한 동지애의 세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용암보다 더 뜨거운 열파와 절대로 머나먼 혁명의 길을 헤쳐갈 동지 한 사람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키워 기운을 끌어올렸다.

이 나라 밤방 꼬득의 열혈청년들이 백두산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태양의 향로에서 주체혁명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뿐이며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력사를 창조하였고 하신

것은 그들이 원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어깨를 쌓으며 혁명의 길에 나섰던 혁명의 조선혁명가들에 의하여 그의

기운이 혁명의 길에 천만민족의 혁명으로 얹어놓으셨다.

이것은 그들이 원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으며 혁명의 길에 나섰던 혁명의 조선혁명가들에 의하여 그의

기운이 혁명의 길에 천만민족의 혁명으로 얹어놓으셨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고귀한 전통을 혁명의 후대들에게 키워온 것이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인 『E. C』 정원들이 이 말로 령도자를 반드시 차지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때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삼천리강상을 밟아온 백두산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태양의 향로에서 주체혁명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뿐이며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적동지애의 고귀한 력사를 창조하였고 하신 것이다.

반세기도록 훌륭 넘는 오랜 세월이 20년대에 한발의 노래 높이 부르며 제국주의 태도로 꾀풀 꽂아온 『E. C』 성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키워온 것이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인 『E. C』 정원들이 이 말로 령도자를 반드시 차지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한 열혈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E. C』의 높은 곧 붉은기사상은 끝에 『E. C』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첫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령도자와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애의 산모법을 창조한 아름답고 고결

위대한 우리 당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

수령결사용위의 전위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회전의 언덕에서 《은. 씨》의 기방이 오른 때로부터 89

돌기의 덤불에 새겨져 있다.

당장 진 일흔장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은. 씨》 결성 기념 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파리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푸공처 달려나갈 맷세를 더욱 굳게 다듬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과 위력을 만방에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면서 그들을 수령 결사용위의 전위투사들로 뿐만 아니라 전시기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향방히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력을 빛나게 계승하여 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은. 씨》의 역사가 있어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수령의 역사와 전통, 사상과 위력을 끌어들이며 승승장구하는 신군혁명의 강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도모로 존엄을 펼쳐 올수 있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혁명박물관, 혁명사적판, 혁명전적

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를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의 가치와 전통을 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성종기 기관 당조직들과 평양시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은. 씨》는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혁명의 전통이라는 대 하여 깊이 새겨주시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단원시당위원회, 덕천시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적건설의 전통을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당일군들이 《은. 씨》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을 수령영예를 향하여 우리 당건설에서 들통히 흘어나가고자 친환경적인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은. 씨》의 전통을 이어 영원한 총애로 높이 모신 것은 《은. 씨》의 전통을 차넘쳤던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역사로 차넘쳤던 장군님의 정역적인 정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은. 씨》에서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운산군, 부전군, 통령군을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은. 씨》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혁명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어오신 원수님의 혁명업적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문화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은. 씨》가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혁사의 주제로서 자기 운명을 이루 할수 있었고 우리 군대가 수령결사용위의 고귀한 전통을

개척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무적 승리의 강군으로 자리날수 깊이 체득하고 있다.

우리 당이 혁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예를 빛나게 실현한 존엄높은 것으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한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혁명이 실체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 길로만 전진해 올수 있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함께 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황해북도와 강원도의 당조직들에서는 《은. 씨》의 전통으로 높이 모신 것은 《은. 씨》의 전통을 차넘쳤던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역사로 차넘쳤던 장군님의 정역적인 정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은. 씨》에서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조직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산도 험하고 바다도 메우는 사상관련, 당정책옹위전에 차넘친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새겨주기 위한 사

